

-기 나름이다

~하기 나름이다 (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)

결과를 상황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로 돌립니다. 또 하나의 고정된 -기 구문으로, 조언과 격려에서 자주 쓰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기 나름이다	생각하다 → 생각하기 나름이에요
ㄹ 어간은 ㄹ 유 지	-기 나름이다	만들다 → 만들기 나름이에요
가장 폭넓은 예	하기 나름이다	다 하기 나름이에요
명사와 함께	명사 + 나름이다	사람 나름이에요
시제를 붙이지 않 음	기본 어간만	생각했기 나름이다 (×)
다른 표현	나름대로	자기 방식대로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 어간에 -기 나름이다를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도 그대로 남으며, 앞에 시제가 붙지 않습니다. 나름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: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는 주장입니다.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.

대부분의 예는 몇몇 어간에서 나옵니다: 생각하다, 하다, 쓰다, 먹다, 마음 먹다. 그중 하기 나름이다가 가장 폭넓게 쓰입니다.

관련 표현인 나름대로는 ‘자기 방식대로’라는 뜻의 다른 말입니다: 나름대로 노력했어요. 명사는 같지만 별개의 표현입니다.

■ 예문

- 1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.
- 2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하기 나름입니다.
- 3 같은 도구라도 쓰기 나름이지요.
- 4 아이는 부모가 가르치기 나름이라고 해요.
- 5 재료가 같아도 만들기 나름이에요.
- 6 그건 사람 나름이에요.

■ 비교

-에 따라
에 따라는 결과가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고, -기 나름이다는 특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.
상황에 따라 달라요. (상황에 따라 다르다) / 하기 나름이에요. (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)

-기 마련이다
정반대의 표현입니다. 마련이다는 결과가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, 나름이다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.
실수하기 마련이에요. (당연히 그렇게 된다) / 하기 나름이에요. (하기에 달렸다)

나름대로
‘자기 방식대로’라는 뜻의 별개 표현으로,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노력했음을 변호할 때 주로 씁니다.
하기 나름이에요. (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) / 나름대로 노력했어요. (내 나름대로 노력했다)

■ 주의

- ✗ 모든 일은 생각했기 나름이에요.
-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.
-기에는 시제가 붙지 않습니다. 과거의 한 경우가 아니라 방식 일반에 대한 말입니다.
- ✗ 재료가 같아도 만들기나름이에요.
- 재료가 같아도 만들기 나름이에요.
나름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- ✗ 저는 하기 나름으로 노력했어요.
-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어요.
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할 때는 나름대로를 씁니다. -기 나름이다는 결과가 방식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표현입니다.